



2012년 1월 31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 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투자전략

2월 월간전략: 바닥치고 속도조절

• 경제분석

미국 선행지수 상승세는 긍정적 경기 전망을 예고

• 채권분석

월말 지표는 금리 하락 요인

• 이머징마켓 동향

중화권 증시, 대내외 악재로 차익실현 확대

중국 통화완화 지속, 증시 강세 유지 예상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성광벤드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영원무역 외 6종목

• 기업분석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현대글로벌비스, OCI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1/19(목)	01/20(금)	01/25(수)	01/26(목)	01/27(금)	01/30(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14.97	1,949.89	1,952.23	1,957.18	1,964.83	1,940.55
	등락폭	22.58	34.92	2.34	4.95	7.65	-24.28
	등락종목	상승(상한)	470(7)	490(5)	421(7)	496(8)	301(13)
		하락(하한)	338(0)	356(1)	404(1)	331(0)	532(1)
	ADR	100.12	102.10	98.24	102.07	108.15	107.56
	이격도	10 일	102.58	103.86	103.29	102.99	101.07
		20 일	103.05	104.65	104.53	104.52	102.97
	투자심리	0	0	0	0	0	0
	거래량 (백만 주)	369	398	372	403	443	408
	거래대금 (십억 원)	6,345	7,239	6,065	5,459	6,023	6,327
코스닥	코스닥지수	515.70	512.17	511.47	516.45	515.81	510.33
	등락폭	2.50	-3.53	-0.70	4.98	-0.64	-5.48
	등락종목	상승(상한)	498(20)	373(15)	467(11)	617(13)	472(13)
		하락(하한)	455(1)	573(5)	474(4)	321(2)	468(2)
	ADR	98.16	96.13	94.73	99.01	103.16	100.38
	이격도	10 일	99.26	98.71	98.74	99.88	99.81
		20 일	100.66	99.87	99.64	100.46	100.10
	투자심리	0	0	0	0	0	0
	거래량 (백만 주)	541	555	464	496	533	531
	거래대금 (십억 원)	2,615	2,752	2,369	2,227	2,205	2,21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254.0	1,616.0	1,176.1	203.4	174.4	388.4	71.6	56.2	282.1	316.6
	매도	3,082.3	1,692.8	1,373.8	153.3	183.8	588.4	75.5	46.6	326.2	214.0
	순매수	171.8	-76.7	-197.7	50.1	-9.4	-200.0	-3.8	9.6	-44.1	102.7
	01 월 누계	-5,602.4	6,109.6	401.7	656.0	462.2	-796.8	269.4	229.8	-418.8	-909.0
	12 년 누계	-5,602.4	6,109.6	401.7	656.0	462.2	-796.8	269.4	229.8	-418.8	-909.0
코스닥	매수	2,061.0	65.0	87.9	8.1	17.1	34.4	8.7	3.9	15.7	20.4
	매도	2,044.8	79.0	85.0	10.7	8.3	39.3	5.3	2.9	18.5	25.4
	순매수	16.2	-14.0	2.8	-2.7	8.8	-5.0	3.4	1.0	-2.8	-5.0
	01 월 누계	277.5	-84.9	-43.5	0.2	18.0	-55.1	-4.4	-13.3	11.2	-149.1
	12 년 누계	277.5	-84.9	-43.5	0.2	18.0	-55.1	-4.4	-13.3	11.2	-149.1

2월 월간전략: 바닥치고 속도조절

2월 월간 밴드	1,880-2,020pt
2012 연간 밴드	1,650-2,250pt
12MF PER	9.3배
12MF PBR	1.11배
Yield Gap	7.4%P

- ▶ 은행주와 시장이 바닥을 쳤다: KOSPI 조정의 형태가 기간 조정' 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
- ▶ 유로 캐리 트레이드 유동성은 제한적으로 예상, 경기 모멘텀은 2분기가 될 것
- ▶ 2012년 2월 KOSPI 밴드 1,880-2,020pt

■ 2월 KOSPI 시나리오 은행주 바닥 치고, 시장도 바닥 쳤다

선진국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증시는 뜨거웠다. 시스템 리스크의 진원지였던 유럽 은행주가 1997년 한국 은행주와 2009년 미국 은행주가 바닥을 쳤던 지점과 비슷한 수준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상승장이 본격 도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KOSPI 조정의 형태가 '가격 조정' 이 아니라 '기간 조정' 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은행이라는 산업이 차지하는 위치 때문일 것이다. 핵심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은행의 붕괴를 용인하지 않는 것이 '대마불사(大馬不死)' 논리인데, 그 논리가 작용하는 핵심적인 지점이 장부가치 0.3배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은행을 살리기 위해 중국에는 개입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경험적 논리' 다.

■ 제한된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은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지속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시나리오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피크를 치고 점차 둔화되는 것이다. 1)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2000년대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와 비교할 때 장기 트렌드로 지속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2) 유로의 내재변동성이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 3) 주요 아시아 통화 캐리 트레이드 수익률을 살펴보면 Cyclical 고점에 도달하여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 경기 모멘텀은 2분기

글로벌 경기에 선행성을 가지는 한국의 재고순환지표가 -1 표준편차 이하로 떨어지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국 재고순환지표가 반등하는 시점은 1분기 말~2분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는 재고조정으로 인한 성장둔화가 먼저 전개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증시의 상승 각도를 제한하는 이유가 된다.

■ 2월 KOSPI 시나리오 은행주 바닥 치고, 시장도 바닥 쳤다

유럽 은행주가 바닥을 치면서 2012년 KOSPI 저점이 PBR 1배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1,700선 하향 이탈)은 낮아졌다. 다만 2월 증시는 기간 조정 내지는 박스권 흐름이 진행될 전망이다. 2월 KOSPI 밴드는 1,880~2,020pt으로 전망한다. KOSPI 1,880선은 한국투자증권 실적 추정치 기준 12MF PER 9.0배 지점이며 2,020선은 12MF PER 9.7배 수준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3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월 31일자로 발간된 <2월 월간전략: 바닥치고 속도조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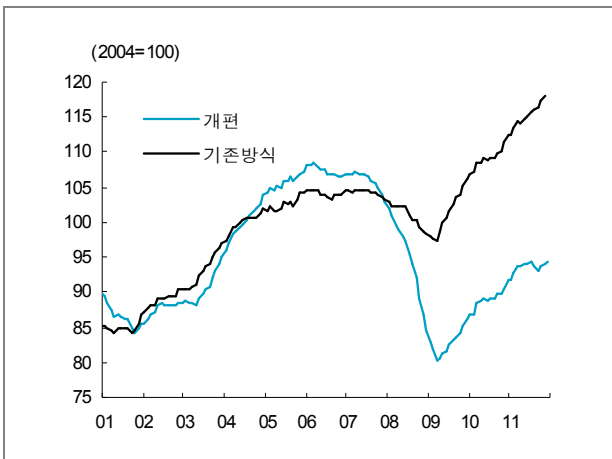
미국 선행지수 상승세는 긍정적 경기 전망을 예고

- ▶ 12월 미국 경기선행지수 0.4% 상승, 예상에 못 미쳤으나 추산 방법 변경 고려해야 함
- ▶ 제조업의 긍정적 조짐 확인, 주택시장 및 고용 여건은 등락 있으나 점진적으로 개선 중
- ▶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 요인으로 일시적 부진 보일 수 있으나 둔화 조짐은 아닐 듯

■ 12월 미국 선행지수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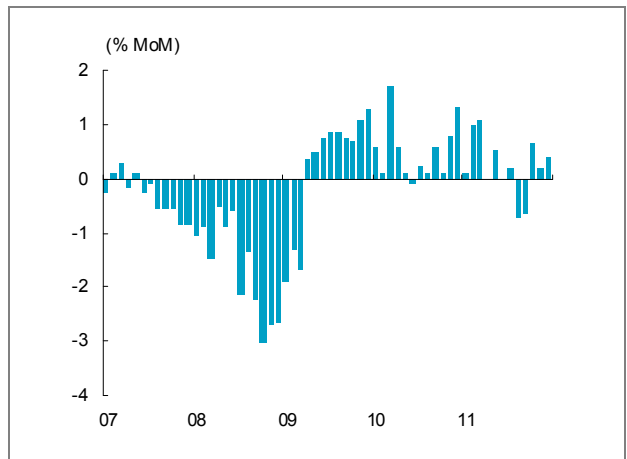
12월 미국 경기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4%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이번 달부터 미국 선행지수 추계 방법이 변경됐음을 감안한다면 상승률 자체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10개의 구성지표 가운데 유동성 지표, ISM신규수주 지수, 소비심리지수, 핵심자본재 수주 등 4개 지표가 기존의 지표들을 대신해 새로 편입되거나 일부 변형됐다. 금융위기 이후 지수 레벨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지만, 경기 전환점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미국 경기선행지수



자료: 미국 컨퍼런스보드

[그림 2] 미국 경기선행지수 상승률(개정)



자료: 미국 컨퍼런스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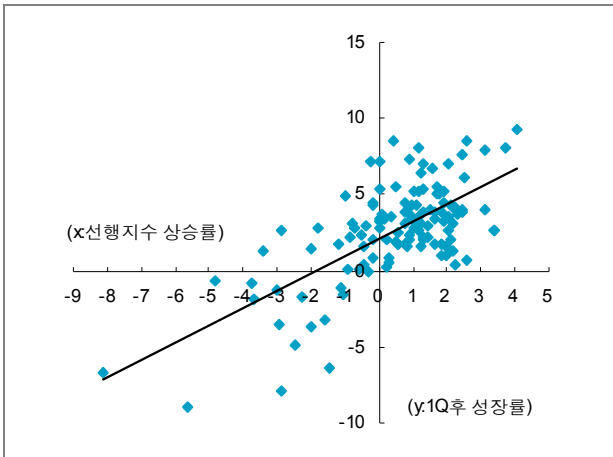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금융위기 이후 실제 미국 경기 여건은 이전 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선행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해왔기 때문에 선행지수와 실제 경기 반등 속도 간 차이가 컸다. 더구나 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 둔화 등도 이전의 방식으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방식 하에서는 선행지수가 암시하는 것과 실제 경기 흐름의 간극이 좁혀짐으로써 경기 국면 판단에서의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작년말 선행지수 상승률 높은 편으로 1분기 경제 호전 기대

우리는 미국 경기선행지수 상승세가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11월보다는 12월 상승폭이 빨라진 것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된 선행지수와 경제성장률 간 상관관계를 지난 30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분석해보면 최근 수 차례에 걸쳐 우리가 제시해왔던 것과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즉, 선행지수 상승률이 높을수록 1분기 후 경제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3개월 전 선행지수 상승률이 1~2%에 있을 경우 1분기 후 미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전기비 연율)은 3.8%가 나왔다. 지난 4분기 선행지수 상승률은 1.3%로 상위 35% 정도에 속해있기 때문에 올초 성장률은 작년 하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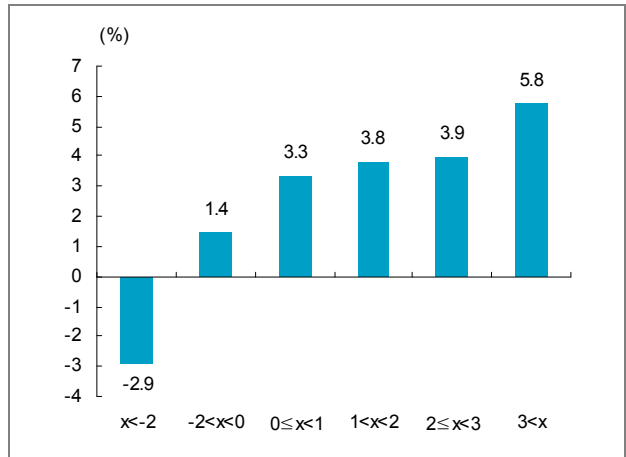
[그림 3] 선행지수 분기 상승률과 GDP 성장률 관계



주: 1분기 후 성장률과 비교

자료: 미국 컨퍼런스보드, 미국 상무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선행지수 상승 구간별 경제성장률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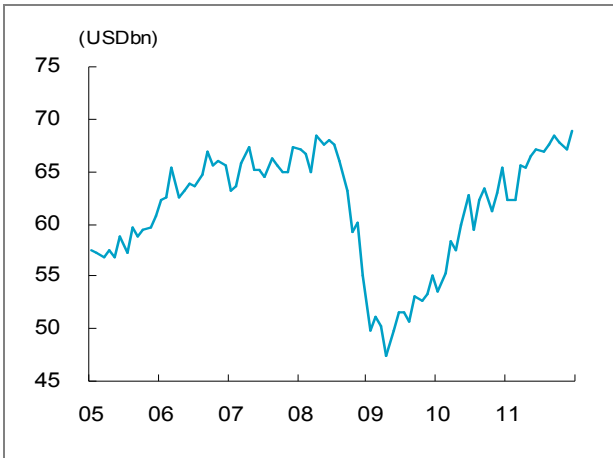


자료: 미국 컨퍼런스보드, 미국 상무부, 한국투자증권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경기의 긍정적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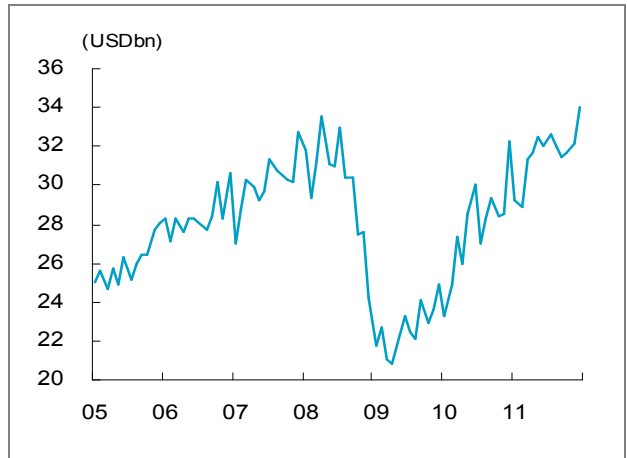
주중 발표된 12월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3% 증가해 미국 제조업 경기의 긍정적 조짐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변동성이 큰 항공기와 국방용 수주를 제외한 민간 핵심 자본재 수주액이 반등한 것은 미국 설비투자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아직 컴퓨터 등 전기전자제품 수요는 회복이 더디나,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주 증가 속도가 빨라 미국 제조업 내에서도 성장 주도 업종이 점차 변화될 가능성이 확인된다.

[그림 5] 미국 민간 핵심 자본재 수주액



자료: 미국 상무부

[그림 6] 미국 제조업체들의 기계류 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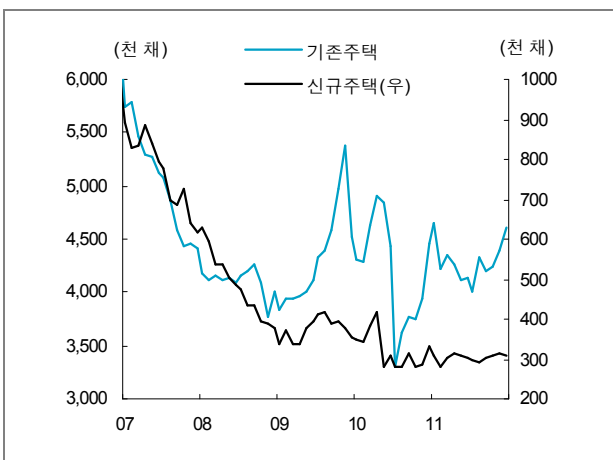


자료: 미국 상무부

■ 주택시장 및 고용 개선은 아직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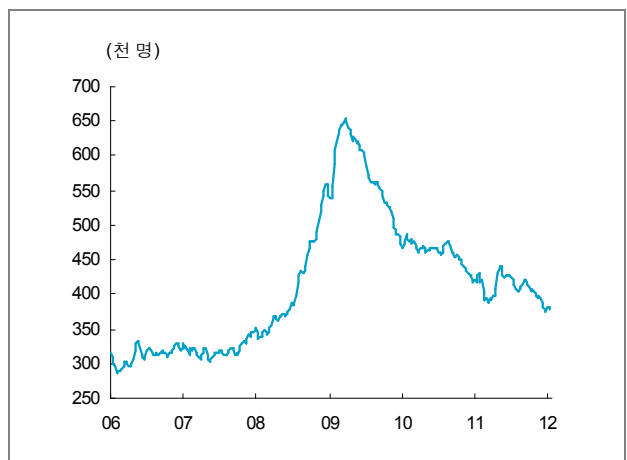
미국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택시장과 고용 여건은 아직 불안하다. 11월에 반등했던 신규 주택판매가 1개월 만에 축소됐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7만 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 주택시장의 뚜렷한 반등 모멘텀은 보이지 않지만,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으며 추가 악화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12월 판매 부진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 12월 기준 주택판매는 전월보다 6.3% 늘었는데, 위기 이후 값싼 압류 매물이 소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판매가 증가하는 반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낮아 신규 주택 구매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최근 1~2주에 걸쳐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기는 하나, 4주 이동평균치는 개선되고 있어 회복세를 의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미국 주택판매



자료: 미국 상무부

[그림 8]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4주 이평)



자료: 미국 상무부

■ 4분기 GDP 성장률 예상 하회, 1분기 호조에 기대를 걸어야 할 시기

미국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비 연율 2.8%로 시장이 예상했던 3%를 하회한 것도 최근 경제지표 호조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지출항목별로는 4분기 기업들의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정부지출이 4.6% 줄었으며 순수출이 감소한 데서 성장세가 제한됐다. 그러나 4분기 성적을 보고 우울해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월별 경제지표들을 봤을 때 10~11월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고조되고 태국 홍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됐던 시기이며, 12월 들어 더 많은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4분기 전체 성적은 최근 분위기에 비해 부진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선행지수와 경제성장률 간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3분기 선행지수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4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임을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반대로, 4분기 선행지수가 1.3% 반등했고 12월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올해 1분기 성장에 기대를 걸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 일시적 등락은 있으나 일부 부진을 둔화의 신호로 보긴 어려움

우리가 미국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나 정쟁 합의 지연 등 불안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악재들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는 않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경기 상승 흐름 과정에서의 등락은 예상 가능한 부분이다. 즉, 일부 경제지표의 반등세가 주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 선행지수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어 일부 부정적 신호를 경기 하강 전환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부 지표의 부정적 신호는 구조적으로 아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주택시장 때문이거나,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제조업 지표의 추세적인 개선은 여전히 긍정적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월말 지표는 금리 하락 요인

■ 지난주 시장동향 동향: 부진한 GDP에도 레벨부담으로 금리낙폭 제한됨

시장참가자들의 관망심리가 높은 가운데, 채권금리는 외국인의 공격적인 국채선물 매도로 상승하여 출발했다. 하지만 미국 FOMC가 초저금리를 2014년까지 연장하고 추가부양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리는 곧 하락반전했다. 우리 예상대로 4Q11 GDP가 부진하게 나온 것도 금리하락에 일조했다. 그러나 레벨부담이 높아 추가하락은 제한되었다.

■ 이번 주 시장전망: 제한적 금리 하락 이어질 전망

이번 주에는 화요일(12월 산업생산), 수요일(1월 소비자물가, 1월 수출입동향) 등 주요 경제지표가 연이어 발표된다. 우리는 12월 산업생산이 경기둔화 국면을 재확인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을 제외한 내수 각 부분이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1월 수출이 전년동월비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경기는 금리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1월이 계절적으로 물가가 전월비로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고, 전년동월비 물가가 3.4%로 급격한 하락할 것으로 보여 물가도 금리하락 압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채권금리 수준이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고는 더 낮아지기 어려워 공격적인 채권매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주 발표되는 경기와 물가지표의 내용이 모두 금리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높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주 채권금리는 전주의 하락세를 제한적이거나 이어갈 것으로 커브는 소폭 스티프닝될 것으로 전망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2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중화권 증시, 대내외 악재로 차익실현 확대

- ▶ 춘절기간 주요 도시 부동산 시장 거래 급격히 위축, 지난해 부동산대출 증가세 큰 폭 둔화
- ▶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양로기금 주식투자 허용 관련 구체적 운용방안 모색 중
- ▶ 건설자재, 부동산 및 은행주 큰 폭 하락, 정유주는 강세

**춘절 연휴 후 첫 거래일
1.5% 하락. 시멘트, 석탄,
부동산 및 은행주 중심으로
차익매물 출회**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춘절 연휴기간 글로벌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개장 첫 날 1.5% 하락으로 마감했다. 춘절 전후로 시기를 예상했던 지준을 인하가 현실화되지 않아 유동성 확대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다. 연휴기간 주요 도시의 주택거래가 급격히 위축됐다는 소식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됐다는 언론 보도로 부동산시장 조정에 대한 우려도 가중됐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지방 양로보험의 주식투자 허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는 허용 가능성이 없다고 발언해 실망매물이 출회됐고 그 외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기회복 지연 우려 및 이란 위기 등 대외악재도 약세 요인이 됐다. 춘절 전 상승폭이 컸던 시멘트, 석탄, 부동산 등 경기민감주와 은행주 중심으로 차익매물이 출회됐고 주류, 가전 등 소비 관련주도 크게 내렸다. 반면 정유, 전자, 미디어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다.

■ 홍콩 시장

**H지수 동반 큰 폭 하락
부동산, 건설자재, 은행 등
업종 낙폭 두드러져**

홍콩 H지수도 본토 증시와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과 본토 부동산 시장 조정에 대한 우려, 유럽 및 이란발 불안 등이 지수 하락의 배경이었다. 또한 공상은행 홍콩 자회사의 대규모 감원 루머로 본토 은행의 추가 감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부동산, 건설자재, 은행주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정유, 헬스케어 및 소비업종이 상승세로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30(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285.04	-1.47	3.57	3.89	3.89
홍콩 H	11,145.60	-2.63	1.76	12.17	12.17
인도 SENSEX	16,917.19	-1.84	1.06	9.46	9.46
러시아 RTS	1,553.58	-0.78	2.04	12.43	12.43
브라질 보베스파	62,904.20	-0.08	1.58	10.84	10.84
베트남 VN	384.94	3.20	7.56	9.50	9.50
MSCI 이머징마켓	1,016.61	0.16	1.70	10.94	10.94

주: 30일 오후 6시 기준

중국 통화완화 지속, 증시 강세 유지 예상

■ 주간 이슈: 중국 통화완화기조 지속 전망

중국에서 춘절 이전에 지준율이 인하될 것이란 기대는 무산됐다. 그러나 공개시작조작을 통해 통화공급 확대, 구이저우(貴州)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지준율 인하 등으로 시중유동성이 확대돼 지준율 인하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경기 하강 및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해외유동성 유출 등 통화완화의 전제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향후 통화완화는 지속될 것이다. 1월말~2월초 시중유동성 조절이 있겠지만 이는 단기조치에 그칠 것이며 1월 신규대출은 전년 동월보다 많을 것이다. 또 이르면 2월 중순 이전에 지준율이 인하될 가능성 있다.

■ 주간 전망: 중화권 증시 강세 유지, 선행지표 주목

본토증시는 춘절연휴를 맞아 23~27일 휴장했다. 16~20일에는 유동성 공급확대로 상해종합지수가 2300p대에 진입했다. 30일 재 개장한 본토증시는 연휴 기간 중 대외 여건 호전 반영으로 주초에 강세로 출발하겠지만 일시적 통화환수조치, 지방양로보험 주식투자 가능성 하락, 선행지표 부진 등으로 주 중반 이후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주 26일 다시 열린 홍콩H지수는 주간단위 2.7% 상승했다. 유럽발 악재 완화, 미국 저금리결정으로 해외자금의 H증시 유입 지속돼 강세기조가 유지되겠지만 본토 유동성의 단기위축, 선행지표 하락으로 상승세는 줄어들 전망이다.

■ 산업뉴스 코멘트: 제지생산 억제, 경공업 등의 부가가치 증가 및 중서부 이전

생산 억제를 골자로 한 중국 제지산업 12.5규획이 발표됐다. 경공업, 방직, 화학섬유, 제약, 제당 등 7개 산업의 12.5규획에서는 부가가치 생산증가, 기술개발 및 노동집약형산업의 중서부지역 이전에 주력할 것을 언급했다. 한편 2011년 주요 건설자재 생산은 16% 증가했고 시멘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중국 증시에서 지준율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인하 불발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해외자금 유출 및 시중유동성 부족현상 지속, 물가압력 완화 추세를 고려할 때 춘절 이전에 지준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상반기중 4차례, 200bp 가량의 지준율 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다만 1월의 지준율 추가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해종합지수의 장기추세 형성은 아직 일러 보인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2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종목/테마	내 용
LG디스플레이(034220) ▶29,300(+2.63%)	2분기 턴어라운드 전망에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LCD 업황 회복에 따른 흑자전환 전망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비중이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 - 또한, 글로벌 업체 총 750여개가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오디오·비디오 전시회인 'ISE 2012'에 참가해 퍼블릭 디스플레이 신제품 공개로 유럽시장 공략 기대
메리츠화재(000060) ▶11,700(+4.93%)	수익성 및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며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장기보험영업 개선에 힘입어 3분기 개별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70.4% 증가해 시장에 상치를 웃도는 실적 달성 소식에 강세 - 아울러, 현재 주가는 2012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로 저평가 메리트가 높아진 상태이며, 4%의 높은 시가 배당수익률이 예상
SJM(123700) ▶6,760(상한가)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드, GM 등으로의 자동차부품 매출처 다변화와 함께 LNG선 발주 호조에 따른 수혜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상한가 - 고마진의 중국법인과 및 북미·유럽향 출하를 담당하는 남아공법인 등 해외법인들의 현지화를 통한 원가경쟁력으로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세계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
엔터주	K-POP 열풍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열풍 확대 및 방송사업자 증가에 따른 콘텐츠 수요 확대 등으로 업황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 에스엠(041510, +11.67%),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6.01%), JYP Ent.(035900, +5.01%) 등 강세
가스관 관련주	남북러 가스관 사업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새 지도부가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 - 휴먼테크코리아(066060), 하이스틸(071090), 비앤비성원(015200, 이상 상한가), KT서브마린(060370, +13.21%), 동양철관(008970, +5.91%) 등 강세
세종시 관련주	분양 재개 및 국가균형발전 기념식 개최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분양 재개 소식과 함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선언 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 개최소식에 힘입어 투자 유치 기대감에 관련주 강세 - 영보화학(014440), 프럼파스트(035200), 유라테크(048430), 대주산업(003310, 이상 상한가), 자연과환경(043910, +6.04%)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성광벤드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성광벤드 (014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대 수주량이 2008년 호황기보다 많고 실적개선으로 올해 EPS증가율이 105.8%에 달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여력은 충분. 현재 수주잔고(1900억원)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매출로 인식되고 2분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세는 가속화될 전망 대형제품 생산 효율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 구조 개선 기대 피팅산업이 과점적 구조이고 지금이 업황 사이클 상승 초입국면임을 고려 시 2013년 이후에도 사상 최대 매출액 경신이 이어질 전망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1. 12F	256	32	25	884	21.5
	2012. 12F	345	66	52	1,818	11.6

– 편입 제외 종목: 인터로조(차익실현, +15.8%)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네패스 (033640)	14,950 (-1.6)	15,200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모바일 AP(Application Processor) 사업 수혜주로 WLP(Wafer Level Packaging) 영업이익 비중(연결)은 금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시스템LSI 투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LS (006260)	83,800 (+1.7)	82,400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 자회사들의 제련 및 외환이익에 따른 4분기 흑자전환 및 2012년 턴어라운드 기대 유효 LS산전과 LS전선의 보유 부동산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 가능성과 전력산업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
한국콜마 (024720)	8,290 (+9.1)	7,6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화장품 사업의 성장세 및 공정수탁 확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의약 사업의 약진에 힘입은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 의약/화장품 사업의 안정성, 선바이오텍 등 우량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세 및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감안할 때 상승 여력 상존
대덕전자 (008060)	10,800 (-9.6)	11,95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DRAM 및 NAND 기판에 사용되는 CSP(Chip Scales Package) 출하량 확대에 힘입어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확대에 따른 모바일 메인보드 기판(HDI; High Density Interconnection)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의 LTE 도입에 따른 장비 확충으로 MLB(Multi Layer Board) 또한 견조한 수주 모멘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이노와이어 (073490)	23,150 (+5.9)	21,85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이동사들의 LTE 관련 투자 본격화에 힘입어, 실적 개선 모멘텀 가시화. 4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 신규 통신망 투자가 진행된 이후에도 단말기 제조업체향 계측장비 생산을 통해 추가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업체인 Agilent와의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 확보도 가능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LS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영원무역 외 6개 종목

신규 편입 종목

영원무역 (1117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경쟁력으로 인한 방글라데시 OEM 수요 확대와 Seller's market 형성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스트리에 주목할 필요 선진국 및 중국의 아웃도어 의류 시장의 고성장세에 따른 수혜 및 니트 의류 및 신발/가방으로의 사업 다각화로 실적 안정성은 강화될 전망 2011년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해외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1. 12F	983	166	122	2,986	9.3
	2012. 12F	1,101	193	141	3,461	7.4

– 편입 제외 종목: 파트론(종목 교체 차원에서 제외, -12.6%)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엔씨소프트 (036570)	294,000 (+4.3)	282,000 (1/19)	837	279	230	11,621	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레이드앤소울 3차 CBT 실시 후 곧바로 OBT/상용화될 예정으로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 블레이드앤소울, 길드워2 등의 순차적인 해외 상용화와 성공 가능성을 감안할 때 기업 가치 개선 흐름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전망 				
서흥캡셀 (008490)	14,750 (-4.8)	15,500 (1/2)	170	29	14	2,033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설 이전으로 인한 하드캡셀 매출 증가 및 F&P(Food & Pharmaceutical)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은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2012년 예상 EPS 기준 PER은 7배 수준으로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 상존 				
솔브레인 (036830)	39,050 (-6.6)	41,800 (1/2)	573	85	63	3,786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CD, 반도체, AM-OLED 산업에 걸친 다양한 제품구성과 탄탄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여타 IT업체들에 비해 높은 실적 안정성을 보유 				
넥센타이어 (002350)	18,150 (+0.6)	18,050 (1/2)	1,420	190	208	2,053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비증설 효과, 브랜드 인지도 개선, OE(Original Equipment) 물량 증가, UHPT(Ultra High Performance Tire) 비중 증가 등 사업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주목할 필요 				
기아차 (000270)	66,500 (0.0)	66,500 (1/2)	30,974	2,422	4,188	10,330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형시장 매출 비중 확대, 'Value Car' 이미지 강화, 디자인 혁신, 원화약세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성장기조는 지속될 전망 				
일진디스플레이 (020760)	12,300 (+4.2)	11,800 (1/2)	447	54	53	1,682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전자 내 터치패널 공급업체 중 중대형 터치스크 부문에서 경쟁우위 확보 갤럭시탭2 출시,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현대모비스(012330)

매수(유지)

목표가: 470,000원(유지)

종가(1/27): 303,000원

4Q11 Review: FTA와 공급망 재구축의 수혜 전망

■ What's new : 실적 예상치에 못미쳐

4분기 실적은 우리의 예상치를 하회했다. IFRS 연결기준 세전이익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9,588억원을 기록했지만 예상치를 6.4% 하회했다. 매출액은 7조 413억원(+16.3% YoY)으로 예상치를 3.9%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은 5,868억원(-1.5% YoY)으로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9.8%에서 8.3%로 하락했고 예상치(10.5%)보다 낮았다.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는 수익성이 낮은 모듈사업의 비중 상승, 신흥국 통화 약세, 급격히 증가한 R&D 비용 때문이다. 부품사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1조 3,103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9.7% 증가한 2,840억원을 기록했다. 모듈사업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단순 모듈부문 매출비중의 상승과 신흥국의 통화 약세로 전년동기 7%에서 5.3%로 하락했다. 단순 모듈부문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한 3조 4,830억원을 기록했지만 핵심부품 매출액은 15.1% 증가한 2조 2,480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에는 외화환산손실이 900억원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 Positives : 새로운 전장품 상용화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과 동사의 해외 OE 매출 확대에 의해 견고한 수익은 지속될 전망이다. 7월 한-EU FTA의 발효로 관세(3.2%) 철폐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 시 관세(2.5%)가 즉시 철폐되어 관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 한편 한국 자동차부품업체 중 만도와 모비스는 11년 3월 발생한 일본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파괴된 글로벌 자동차산업 공급망 재구축의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가 기아차의 고급 세단 K9(4월 출시 예정)에 full LED 램프를 공급할 것도 주목할 만하다. 모비스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된 full LED 램프는 한국 완성차로는 최초로 K9에 장착된다. 11년 3월부터는 Veloster에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를 공급하고 있다. 이로써 13년까지 자동차 전장품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동사의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Negatives : R&D 비용의 증가

동사는 급성장하는 전장품 사업부에 집중하면서 R&D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R&D 비용은 10년 3천2백억원에서 11년 3천6백억원으로 증가했으며, R&D 투자비용은 15년까지 연간 두자리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470,000원 유지

현대모비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12개월 forward PER 13배(사상 최고치)를 적용한 목표주가 470,000원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4Q11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6,779.6	7,041.3	3.9	7,042.5	8.4	16.3	29,472.2	29,347.1
영업이익	713.3	586.8	(17.7)	742.9	(12.0)	(1.5)	3,060.3	3,149.9
영업이익률(%)	10.5	8.3	(2.2)	10.5	(1.9)	(1.5)	10.4	10.7
세전이익	1,024.4	958.8	(6.4)	1,168.1	5.4	14.2	4,545.9	4,811.7
순이익	794.4	621.6	(21.8)	899.2	(12.0)	(7.2)	3,409.4	3,718.3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2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G디스플레이(034220)

매수(유지)

목표가: 36,000원(유지)

종가(1/27): 28,550원

4Q11 review: OLED TV와 In-cell터치패널 등으로 차별화 지속

■ What's new: OLED설비투자 의사결정 빨라질 듯

1월초 CES에 출시한 동사의 55인치 OLED TV 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당초 우려와 달리 삼성 제품과 비교해 화질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과 힘입어 원가경쟁력이 있는 생산기술을 개발해 온 동사는 OLED TV패널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을 고려 중이다. 투자의사결정 시기를 당초 2012년 말에서 55인치 OLED TV출시와 거의 같은 3분기로 1~2분기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투자규모나 방식 등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일부 투자가 진행된 8세대 LCD라인인 P98라인의 OLED생산라인 전환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LCD패널수급 개선과 OLED설비투자 규모 축소라는 점에서 동사 실적 및 주가에 긍정적인 전망이다.

■ Positives: In-cell터치 등 차별화 제품 비중 지속 증가

애플향 제품을 포함한 차별화 제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도 타블렛PC패널뿐만 아니라 3D FPR패널의 판매량 증가, In-cell터치패널 등으로 차별화 제품의 판매비중을 지난 4분기 30%에서 2012년 4분기에 60%까지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동률이 90%를 넘고 있고, 향후 생산능력 증가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출하량 증가보다는 제품mix개선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차별화제품의 비중 증가는 신제품 생산에 따른 초기 수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경쟁업체 대비 수익성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줄 것이다.

■ Negatives: TV수요 전망 여전히 보수적

2012년 LCD TV수요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관련업체들이 2011년 대비 10% 미만의 출하량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다. 완제품업체들의 de-stocking과정은 마무리됐지만 보수적인 수요 전망이 바뀌지 않는 이상 LCD패널에 대한 re-stocking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수요 전망 하에서도 제한적인 공급증가로 인한 디스플레이 업황의 추세적인 개선은 가능할 전망이다.

■ 결론: 추세적인 이익증가를 기대하고 매수할 시기. 목표주가 36,000원 유지

동사와 삼성전자의 가동률은 이미 90%를 넘어 3월부터는 패널수요 증가의 수혜가 대만패널업체로 확산될 것이다. 우리는 3월 패널가격 반등과 2분기에 동사가 1,947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한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이익증가와, 이로 인한 추가적인 주가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단기 주가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지금은 동사 주식을 매수할 시기이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6,000원(2012년 추정BPS에 목표PBR 1.2배 적용)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4Q11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6,875	6,610	(3.9)	6,688	5.4	2.0	28,886	27,140
영업이익	(92)	(145)	NA	(122)	NA	NA	889	562
영업이익률(%)	(1.3)	(2.2)		(1.8)			3.1	2.1
세전이익	(95)	(133)	NA	(79)	NA	NA	889	538
순이익	(76)	(6)	NA	(34)	NA	NA	729	527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삼성전자(005930)

매수(유지)

목표가: 1,500,000원(상향)

종가(1/27): 1,125,000원

4Q11 Review: 돋보이는 스마트폰과 TV의 경쟁력

■ What's new: 일회성 이익 제외 시에도 분기 실적 개선 흐름 지속

삼성전자는 2011년 4Q 실적을 매출 47.3조원, 영업이익 5.31조원(OPM 11.2%), 순이익 4조원(NPM 8.5%)로 발표하였다. 4Q OP 중 일회성 이익 8천억원에 대해서 회사는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당사는 ① 반도체의 HDD 사업 매각 차익 9천억원(+), ② 통신 사업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로열티 충당금 환입 2천억원(+), ③ LCD의 가격담합 관련 충당금 3천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더라도 OP 4.5조원으로 2011년 1Q 이후 분기 실적 개선 흐름이 향후에도 3Q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Positives: 스마트폰 및 TV의 경쟁력 확대로 2012년 수익 전망 상향

1) 통신 사업은 4Q 3천7백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여, 계절적인 마케팅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OP 2.64조원(OPM 14.8%)으로 선방하였다. 갤럭시S2, 갤럭시노트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에 중저가 스마트폰 확판을 더하여 1Q 스마트폰 판매 4천만대(이전 전망 3천6백만대) 등 2012년 스마트폰 판매 전망을 1.9억대(이전 전망 1.7억대)로 상향하였다. 2) DM&A는 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과 이머징 마켓팅 전략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4Q OP 5,700억원(38% QoQ)을 달성하였다. 스마트폰과 TV의 경쟁력 확대를 전망하여, 2012년 통신 OP 10조원(7%↑), DM&A OP 1.6조원(11%↑)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Negatives: 메모리 및 LCD 시황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상반기 중 개선 기대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가격 하락(DRAM -14%, NAND -9%)에 따라 HDD 사업 매각 차익 9천억원 제외 시 OP 1.41조원(OPM 15%)으로 하락하였다. Display Panel의 경우, LCD 사업은 가동률 개선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영업적자(-1,900억원)가 지속되고, SMD는 OLED R&D 비용 증가 등으로 OPM(3Q 18%→4Q 12%)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후발업체들을 중심으로 공급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고 조정을 통해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2분기 이후에는 메모리와 LCD가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 결론: 목표주가 150만원으로 상향, 최근 주가 상승에도 Valuation 매력 부족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 상향은 기존 Sum of the parts valuation에 2012년 영업이익 전망 상향과 글로벌 Peer업체들의 주가 상승에 따른 Multiple 개선을 반영하였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Valuation 매력이 더욱 부족되고 있고, 분기 실적 개선 흐름이 계속되는 만큼 꾸준한 주가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단위: 십억원, %, %p)

	4Q11P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7,614	47,304	(310)	45,394	15	13	165,312	163,029
영업이익	5,106	5,296	191	4,953	25	76	16,059	15,890
영업이익률(%)	10.7%	11.2%	-	-	-	-	9.7%	-
세전이익	5,609	5,474	(135)	5,138	32	51	17,294	17,011
순이익	4,628	4,001	(626)	4,324	16	17	14,361	13,826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하나금융지주(086790)

매수(유지)

목표가: 51,000원(유지)

종가(1/27): 39,950원

외환은행 인수로 2012년 ROE 12.5% 전망

■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나금융은 향후 5 영업일 이내에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지분 51.0%에 대한 매매 거래를 체결할 예정이며 거래 체결 즉시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6.2%에 대한 태그얼롱 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57.3%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 일회성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 포함시 2012년 ROE 12.5% 전망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시기는 2011년말 또는 2012년 3월로 아직 미정이다.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의 연결 재무제표에 2012년 1분기부터 포함된다고 가정할 경우 하나금융의 2012년 ROE는 12.5%로 기존 8.0% 대비 4.5%p 높아진다. 이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순자산가치(BPS 13,110원) 이하의 가격인 주당 11,900원에 인수하게 되므로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 약 4천5백억원이 일회성 이익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2012년 수정 ROE는 9.5%로 추정된다.

■ 향후 인수과정 전망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금융위 승인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나금융 내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two bank 체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나금융이 두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면 연결 기준 레버리지가 높아지므로 중장기적 ROE 역시 2~3%p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잔여지분 43% 매입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외환은행 잔여지분 추가 매입할 때마다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나금융은 2월 9일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때 보다 상세한 외환은행 인수 관련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1,000원 유지

하나금융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1,000원을 유지한다. Gordon growth model에 따라 지속가능한 ROE 9.5%, 성장률 1%, 자기자본비용 11.6%를 적용하여 산출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외환은행 순이익을 포함하고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 실현으로 EPS 19% 증가, 장기적으로 two bank 체제에서의 레버리지 상승(기존 11.9배에서 14.5배)으로 ROE 제고가 기대된다. 외환은행을 포함했을 때 하나금융의 2012년 12개월 forward PBR은 0.63배로 은행업종 평균 PBR 0.60배와 유사한 수준이다.

	총영업이익 (십억원)	총전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BPS (원)	PER (배)	PBR (배)	ROA (%)	ROE (%)
2009A	2,929	1,257	371	306	1,463	85.5	45,605	23.7	0.8	0.2	3.3
2010A	3,890	2,098	1,371	1,011	4,829	230.0	50,996	7.2	0.7	0.6	10.0
2011F	4,365	2,292	1,753	1,256	5,211	7.9	57,706	6.7	0.6	0.7	10.2
2012F	4,284	2,149	1,542	1,156	4,796	-8.0	61,802	7.2	0.6	0.6	8.0
2013F	4,480	2,280	1,483	1,110	4,607	-3.9	65,701	7.5	0.5	0.6	7.2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삼성전기(009150)

중립(유지)

목표가: 93,000원(상향)

종가(1/27): 91,000원

4Q11 Review: LED 이후의 차세대 성장엔진을 기다리며

■ What's new : 재고조정 시기에도 불구하고 3분기 대비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

삼성전기는 지난 19일에 이미 4분기 손익계산서를 공시했고, 27일 실적발표회를 통해 세부적 사항들을 발표했다(매출액 1.66조원, 영업이익 990억원). MLCC를 제외한 전부분이 증가(QoQ)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4분기는 부품의 재고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감소(QoQ)한 실적을 나타내지만 삼성전기의 4분기 실적이 증가(QoQ)한 요인은 재고조정을 상쇄할 만큼 삼성전자 휴대폰과 TV의 출하가 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년 4분기부터 삼성LED의 실적이 연결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LED의 영업이익자 추정치(210억원)를 제외하면 최근 업데이트된 시장컨센서스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된다.

■ Positives : 스마트폰 관련 부품의 호조를 반영하여 2012년 영업이익을 상향조정

1) 4분기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36.7백만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4분기에 스마트폰 관련 부품인 HDI, 연성PCB, FC-CSP, 카메라모듈, WLAN이 호조를 보였다. 당사는 2012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대수를 1.92억대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전사 영업이익을 기존 3,680억에서 4,241억원(LED 제외할 경우)으로 15% 상향 조정한다. 2) 노트북의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의 상승을 통한 점유율 증가로 그 동안 부진했던 FC-BGA가 19% 증가한 970억원의 매출액으로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했다.

■ Negatives : 가격경쟁의 지속으로 MLCC의 수익성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

1) TV와 PC 수요의 부진으로 MLCC 업체들간의 가격 경쟁이 지속되어 4분기에도 MLCC의 영업이익률은 한자리 중반까지 하락하였다. 글로벌 IT 수요를 감안하면 2012년 상반기에도 MLCC 업황의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2012년에 Ultrabook의 비중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Ultrabook의 출하가격을 700~800 달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부품에 대한 단가인하압력이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 결론 : 목표주가를 93,000원으로 소폭 상향조정. 하지만 투자이건은 중립을 유지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87,000원에서 93,000원으로 7% 상향조정한다. 자회사인 삼성LED가 매각되어 이 부문의 실적이 2012년에 제외되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대수를 상향조정하여 관련 부품의 영업이익을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이다(적정 PBR은 전변과 동일하게 지난 4년간의 평균 2.0배를 적용). 하지만 투자이건은 중립으로 유지한다. 1) 1분기가 비수기인 영향으로 실적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2) 성장엔진인 LED가 매각되었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동력이 가시화된 이후에 지금의 PER 수준을 상회하는 valuation multiple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단위: 십억원, %, %p)

	4Q11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471	1,664	193	1,860	5.9	20.4	7,301	7,101
영업이익	62	99	37	72	22.8	-0.8	424	408
영업이익률(%)	4.2	5.9	1.7	3.9	15.7	-18.1	5.8	5.7
세전이익	52	157	105	NA	124.3	49.1	500	NA
순이익	43	145	102	NA	123.4	57.4	385	466

주: 컨센서스는 LED 실적 포함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글로비스(086280)

매수(유지)

목표가: 260,000원 (유지)

종가(1/27): 194,000원

4Q11 Review: 예상했던 수준의 양호한 성과

■ What's new :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분기 영업이익 기록

4분기 IFRS 별도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1조원, 882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영업이익은 2011년 2분기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수십억원의 일회성 성과급을 감안하면 4분기 영업이익은 실질적으로 사상 최대치다. IFRS 별도 기준은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데, 해외 자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지분법 이익도 2010년 748억원에서 2011년에는 1,200~1,3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IFRS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3,021억원으로 전년대비 29.6% 증가했으며 2011년 추정 지분법이익(1,250억원)을 감안한 당기순이익은 4,031억원이다.

■ Positives : 올해 매출액, 현대/기아차보다 고성장할 것

올해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량 목표는 700만대로 전년대비 6.2% 늘어나는 것이다. 2012년 현대차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8.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컨센서스 기준). 과거 글로비스는 현대/기아차의 사업목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률을 사업계획으로 제시했었는데 올해는 차이가 많이 난다. 글로비스는 올해 매출액 목표치를 8조 9,300억원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8.3% 늘어나는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먼저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증가만큼 기존 매출액이 늘어나는 부분(4,680억원 증가), 현대건설 물류 수행(2,000억원 증가), 상사 매출(1,700억원 증가), 완성차 해상운송부문 매출액(3,000억원 증가) 증가 효과를 합산하면 1조 1,380억원의 매출증가가 예상돼 글로비스의 목표(매출 1조 3,822억원 증가)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 Negatives : 자동차 관련 계열사 주가와 차별화 될 수 있을까?

올해 관건은 글로비스가 자동차 관련 계열사 보다 고성장 한다고 해서 주가도 차별화 될 수 있을 지의 여부다. 글로비스의 자동차 관련 매출의존도가 60%로 높은 만큼 지난 수 년간 자동차 관련 계열사의 주가와 같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 결론 : 주가,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 점진적 상승세 예상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6만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DCF모형을 사용해 구한 314,619원과 영업 및 자산가치를 더해 구한 201,021원을 평균한 것이다(2011년 7월 14일 제시). 작년 11월 고점 형성 이후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해 valuation 부담이 완화됐다. 지분법 이익을 고려한 조정순이익 기준 PER이 14.7배로 최근 3년이래 가장 낮다.

(단위: 십억원, %, %p)

	4Q11P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066	2,117	2.5	2,008	8.8	33.4	7,496	7,441
영업이익	90	88	(2.5)	93	3.6	38.2	342	345
영업이익률(%)	4.4	4.2	-	4.6	-	-	4.6	4.6
세전이익	91	102	11.7	107	13.9	28.5	363	390
순이익	71	89	26.4	82	32.1	32.5	284	301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OCI(010060)

매수(유지)

목표가: 300,000원(유지)

종가(1/27): 263,500원

4Q11 Preview: 애매한 것들이 사라졌다

■ 실적 감소는 예견된 바, 이제 업황은 바닥을 빠져 나와

OCI의 2011년 4분기 실적은 전 분기 대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매출액: 9,325억원, -13% QoQ /영업이익: 1,002억원, -60% QoQ). 폴리실리콘 가격 급락과 설비 확장에 따른 고정비의 증가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며 예상되었던 결과다. 그러나 지금은 태양광 산업의 업황이 바닥을 통과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폴리실리콘을 비롯한 제품 가격의 하락이 멈췄다. 그리고 2011년 태양광 발전의 설치는 25GW로, 연초에 예상했던 18~20GW를 크게 뛰어넘어 성장 둔화 우려를 해소해 주었다.

■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해 최대의 불안요소 제거

업황이 바닥을 통과한 것으로 보는 근거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난립했던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며 극심한 가격 경쟁은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며 폴리실리콘 가격은 현재의 킬로그램당 31달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OCI를 비롯한 상위업체들의 주도로 점진적인 가격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해 마진을 개선하면서 수요도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신규 공급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도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 제품가격 안정과 보조금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수요 증기를 보장

최근 독일에서 보조금 지급의 총량을 제한하거나 대폭 추가 삭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무산되었다.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7월로 예정된 보조금 삭감 전까지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가격과 보조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빨리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작년 12월에만 3GW가 설치되었다. 1월에 단행되는 보조금 삭감을 앞두고 설치가 집중된 결과다. 또한 단기 수요 급증으로 누적된 태양광 모듈의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 향후 증가하는 수요는 전 밸류체인의 실질 가동률 상승과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다.

■ 불확실성 사라지고 실적 개선의 가시성 높아져 긍정적 주가 전개 기대

OCI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30만원을 유지한다. 단기 실적의 위축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되지만 이익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긍정적인 주가흐름이 기대된다. 1월은 연말 수요 집중 이후 수요의 일시적 소강상태로, 실적의 회복은 2분기부터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비유럽권 국가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올해 수요 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09A	2,728	658	527	357	17,161	18.4	907	12.7	6.9	3.3	27.0
2010A	3,311	840	782	584	25,964	51.3	1,172	12.7	7.5	3.7	34.3
2011F	4,331	1,126	1,044	780	33,390	28.6	1,580	6.6	3.6	1.6	29.5
2012F	4,058	527	379	283	11,874	(64.4)	1,099	22.2	6.9	1.8	8.3
2013F	5,184	768	589	440	18,443	55.3	1,530	14.3	5.2	1.6	11.8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1/19(목)	01/20(금)	01/25(수)	01/26(목)	01/27(금)	01/30(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14.97	1,949.89	1,952.23	1,957.18	1,964.83	1,940.55
	등락폭	22.58	34.92	2.34	4.95	7.65	-24.28
	등락종목						
	상승(상한)	470(7)	490(5)	421(7)	512(11)	496(8)	301(13)
	하락(하한)	338(0)	356(1)	404(1)	289(0)	331(0)	532(1)
	ADR	100.12	102.10	98.24	102.07	108.15	107.56
	이격도						
	10 일	102.58	103.86	103.29	102.99	102.74	101.07
	20 일	103.05	104.65	104.53	104.52	104.58	102.97
코스닥	투자심리	0	0	0	0	0	0
	거래량 (백만 주)	369	398	372	403	443	408
	거래대금 (십억 원)	6,345	7,239	6,065	5,459	6,023	6,327
	코스닥지수	515.70	512.17	511.47	516.45	515.81	510.33
	등락폭	2.50	-3.53	-0.70	4.98	-0.64	-5.48
	등락종목						
	상승(상한)	498(20)	373(15)	467(11)	617(13)	472(13)	333(17)
	하락(하한)	455(1)	573(5)	474(4)	321(2)	468(2)	616(5)
	ADR	98.16	96.13	94.73	99.01	103.16	100.38
코스닥	이격도						
	10 일	99.26	98.71	98.74	99.88	99.81	98.95
	20 일	100.66	99.87	99.64	100.46	100.10	98.90
	투자심리	0	0	0	0	0	0
	거래량 (백만 주)	541	555	464	496	533	531
	거래대금 (십억 원)	2,615	2,752	2,369	2,227	2,205	2,21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254.0	1,616.0	1,176.1	203.4	174.4	388.4	71.6	56.2	282.1	316.6
	매도	3,082.3	1,692.8	1,373.8	153.3	183.8	588.4	75.5	46.6	326.2	214.0
	순매수	171.8	-76.7	-197.7	50.1	-9.4	-200.0	-3.8	9.6	-44.1	102.7
	01 월 누계	-5,602.4	6,109.6	401.7	656.0	462.2	-796.8	269.4	229.8	-418.8	-909.0
	12 년 누계	-5,602.4	6,109.6	401.7	656.0	462.2	-796.8	269.4	229.8	-418.8	-909.0
코스닥	매수	2,061.0	65.0	87.9	8.1	17.1	34.4	8.7	3.9	15.7	20.4
	매도	2,044.8	79.0	85.0	10.7	8.3	39.3	5.3	2.9	18.5	25.4
	순매수	16.2	-14.0	2.8	-2.7	8.8	-5.0	3.4	1.0	-2.8	-5.0
	01 월 누계	277.5	-84.9	-43.5	0.2	18.0	-55.1	-4.4	-13.3	11.2	-149.1
	12 년 누계	277.5	-84.9	-43.5	0.2	18.0	-55.1	-4.4	-13.3	11.2	-149.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2,159	운수장비	-75,081
운수창고	7,180	화학	-63,338
금융업	6,334	철강및금속	-34,666
LG디스플레이	16,384	삼성전자	-34,357
LG전자	14,599	하이닉스	-26,912
NHN	8,126	현대중공업	-24,689
한진해운	6,327	LG화학	-23,347
신한지주	5,605	현대차	-18,586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7,540	운수장비	-40,906
화학	13,002	철강및금속	-8,517
증권	5,954	보험	-6,504
LG화학	11,848	현대중공업	-11,027
삼성증권	10,176	삼성전자	-9,833
SK이노베이션	9,750	현대차	-8,992
LG디스플레이	8,154	기아차	-8,443
S-Oil	7,034	롯데쇼핑	-7,05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6,766	운수창고	-1,483
화학	2,576	음식료품	-927
증권	1,889	금융업	-837
현대모비스	4,619	SK이노베이션	-2,809
삼성물산	3,064	삼성전자	-1,937
삼성증권	2,213	LG상사	-1,882
LG생활건강	2,015	대한항공	-1,858
LG전자	1,521	호남석유	-954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6,485	운수장비	-30,961
전기,전자	9,733	서비스업	-16,877
운수창고	6,419	철강및금속	-3,949
S-Oil	15,506	현대모비스	-20,440
LG화학	5,983	SK이노베이션	-15,625
LG전자	4,469	삼성엔지니어링	-7,953
하나금융지주	3,992	현대차	-7,424
우리금융	3,676	현대중공업	-4,627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창고	16,405	운수장비	-153,542
서비스업	10,955	철강및금속	-40,525
건설업	7,039	전기,전자	-24,825
S-Oil	28,622	삼성전자	-68,488
LG디스플레이	26,082	현대중공업	-42,219
LG전자	24,912	현대모비스	-41,221
한진해운	14,379	현대차	-27,887
삼성증권	13,465	하이닉스	-25,176
NHN	11,423	롯데쇼핑	-15,448
GS	11,174	제일모직	-13,972
삼성전기	8,933	한국타이어	-12,926
LG	8,257	현대제철	-12,403
삼성물산	8,126	POSCO	-11,732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07,109	운수장비	-215,675
금융업	61,422	화학	-67,960
철강및금속	30,560	서비스업	-23,235
삼성전자	59,188	현대모비스	-206,084
KB금융	42,954	LG생활건강	-30,854
하이닉스	22,562	현대차	-28,343
현대중공업	18,972	LG화학	-26,694
롯데쇼핑	17,067	NHN	-21,184
삼성전기	14,475	현대글로벌비스	-10,480
LG전자	13,287	현대건설	-9,038
POSCO	11,079	삼성물산	-8,958
신한지주	10,347	만도	-8,766
현대제철	10,087	삼성테크윈	-7,18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2,572	디지털컨텐츠	-4,213
방송서비스	1,704	운송장비,부품	-1,048
기계,장비	588	IT부품	-855
에스엠	3,154	SBS콘텐츠허브	-1,805
CJ오쇼핑	1,737	네패스	-1,241
실리콘웍스	1,237	성우하이텍	-1,200
태광	983	엘엠에스	-1,033
인프라웨어	817	게임빌	-779

연 기 금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1,998	반도체	-892
오락,문화	1,645	금속	-326
계약	1,161	운송장비,부품	-143
다음	1,998	에스엠	-496
파라다이스	1,597	게임빌	-458
셀트리온	1,129	디지털컨텐츠	-293
실리콘웍스	614	메디포스트	-214
심텍	596	셀트리온	-201

(체결기준: 백만원)

보 험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3,672	반도체	-3,624
IT부품	1,882	디지털컨텐츠	-3,602
금속	1,685	운송장비,부품	-1,994
에스엠	3,672	STS반도체	-2,713
다음	907	티씨케이	-1,995
비에이치아이	877	SBS콘텐츠허브	-1,805
에이테크솔루션	824	JCE	-1,693
성광밴드	808	OCI머티리얼즈	-1,684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5,819	계약	-6,232
오락,문화	1,584	디지털컨텐츠	-2,343
소프트웨어	1,237	기계,장비	-2,289
에스엠	6,341	셀트리온	-4,062
안철수연구소	2,457	성용광전투자	-1,805
OCI머티리얼즈	1,977	씨앤케이인터	-1,661
파라다이스	1,415	아이넷스쿨	-1,354
다음	1,135	메디포스트	-1,280
휴맥스	1,020	에스에프에이	-1,228
EG	913	인프라웨어	-1,091
나우콤	410	네오위즈게임즈	-1,053
루멘스	381	한국정밀기계	-994
성광밴드	368	가비아	-823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6,359	반도체	-3,624
인터넷	4,510	디지털컨텐츠	-3,602
기계,장비	1,762	운송장비,부품	-1,994
에스엠	6,854	STS반도체	-2,713
다음	4,374	티씨케이	-1,995
실리콘웍스	3,358	SBS콘텐츠허브	-1,805
비에이치아이	1,978	JCE	-1,693
태광	1,670	OCI머티리얼즈	-1,684
인프라웨어	1,640	SK브로드밴드	-1,599
파라다이스	1,425	포스코컴텍	-1,426
심텍	1,327	네패스	-1,342
CJ오쇼핑	1,123	성우하이텍	-1,156
나노신소재	999	CJ E&M	-987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5,819	계약	-6,232
오락,문화	1,584	디지털컨텐츠	-2,343
소프트웨어	1,237	기계,장비	-2,289
에스엠	6,341	셀트리온	-4,062
안철수연구소	2,457	성용광전투자	-1,805
OCI머티리얼즈	1,977	씨앤케이인터	-1,661
파라다이스	1,415	아이넷스쿨	-1,354
다음	1,135	메디포스트	-1,280
휴맥스	1,020	에스에프에이	-1,228
EG	913	인프라웨어	-1,091
나우콤	410	네오위즈게임즈	-1,053
루멘스	381	한국정밀기계	-994
성광밴드	368	가비아	-82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STX팬오션	11 일	효성	24 일
GS	8 일	SK이노베이션	24 일
대한생명	8 일	대한제분	19 일
KT&G	7 일	현대증권	18 일
대우건설	7 일	STX	18 일
CJ제일제당	7 일	미래에셋증권	18 일
유니온스틸	6 일	삼성전기	15 일
삼성SDI	6 일	일성신약	14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GS홈쇼핑	6 일	SBS콘텐츠허브	17 일
파라다이스	6 일	휴맥스	17 일
모두투어	6 일	파라다이스	9 일
셀트리온	5 일	동서	7 일
이트레이드증권	5 일	OCI머티리얼즈	7 일
에이블씨엔씨	5 일	성광벤드	4 일
서부T&D	3 일	태광	4 일
다음	3 일	EG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LG전자	88,162	삼성전자	662,302
KT&G	56,645	POSCO	182,531
삼성전기	55,359	현대중공업	180,723
S-Oil	54,707	KB금융	170,957
SK이노베이션	52,214	하이닉스	150,777
LG디스플레이	45,708	LG화학	137,391
CJ제일제당	43,352	삼성SDI	96,337
GS	43,079	현대제철	94,488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23,656	에스엠	19,461
에스엠	12,855	서울반도체	11,593
플렉스컴	6,054	파라다이스	6,266
실리콘웍스	5,920	OCI머티리얼즈	5,776
GS홈쇼핑	5,753	다음	4,539
파라다이스	4,007	솔브레인	4,006
나노신소재	2,610	안철수연구소	3,907
인프라웨어	2,453	휴맥스	2,947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금융업	4,681	61,422	66,104
증권	5,307	6,606	11,914
섬유,의복	2,138	3,026	5,164
LG전자	24,912	13,287	38,199
LG디스플레이	26,082	8,070	34,152
삼성전기	8,933	14,475	23,408
GS	11,174	9,096	20,270
신한지주	5,702	10,347	16,049
우리금융	3,918	7,643	11,561
GKL	7,740	81	7,820
삼성SDI	4,218	2,685	6,903
현대산업	5,576	1,305	6,881
금호석유	6,396	239	6,636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출판,매체복제	6,359	5,819	12,178
오락,문화	664	1,584	2,249
소프트웨어	712	1,237	1,950
에스엠	6,854	6,341	13,195
다음	4,374	1,135	5,509
실리콘웍스	3,358	303	3,661
파라다이스	1,425	1,415	2,841
안철수연구소	1	2,457	2,458
비에이치아이	1,978	160	2,138
태광	1,670	236	1,906
인터플렉스	854	11	865
성광벤드	436	368	804
디오텍	579	146	72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모비스	13 일	제일기획	14 일
삼성엔지니어링	13 일	CJ제일제당	11 일
제일모직	12 일	풍산	10 일
CJ	11 일	삼성테크윈	7 일
화신	10 일	LG생활건강	5 일
한국타이어	8 일	LG유플러스	4 일
하이닉스	8 일	KT&G	4 일
롯데칠성	8 일	케이피케미칼	4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테크노세미켐	12 일	네오위즈게임즈	9 일
SDN	12 일	메가스터디	8 일
SK브로드밴드	11 일	GS홈쇼핑	5 일
에스에프에이	8 일	JW중외신약	5 일
SBS콘텐츠헤브	7 일	씨젠	5 일
크레듀	7 일	서부T&D	4 일
이오테크닉스	6 일	하이록코리아	4 일
다산네트웍스	6 일	현진소재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모비스	-268,268	LG생활건강	-55,300
현대차	-186,111	KT&G	-50,739
삼성전자	-162,898	CJ제일제당	-29,261
현대중공업	-152,632	삼성전자우	-14,727
하이닉스	-134,671	풍산	-11,976
기아차	-78,929	제일기획	-9,272
한국타이어	-77,030	스카이라이프	-9,085
POSCO	-75,948	동부화재	-7,323

KOSDAQ			
기	관	외	국 인
네오위즈게임즈	-10,790	GS홈쇼핑	-13,355
SK브로드밴드	-7,503	네오위즈게임즈	-7,090
CJ E&M	-7,411	덕산하이메탈	-5,010
메디포스트	-6,745	에스에프에이	-3,178
OCI머티리얼즈	-6,244	인프라웨어	-3,112
서울반도체	-4,000	씨젠	-2,911
SBS콘텐츠헤브	-3,944	컴투스	-2,396
솔브레인	-3,834	젬백스	-2,378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153,542	-215,675	-369,217
통신업	-3,854	-745	-4,599
비금속광물	-160	-195	-354
현대모비스	-41,221	-206,084	-247,305
현대차	-27,887	-28,343	-56,230
만도	-10,864	-8,766	-19,630
삼성엔지니어링	-11,217	-5,999	-17,216
SK	-3,662	-5,425	-9,086
넥센타이어	-7,738	-1,018	-8,756
아모레퍼시픽	-2,477	-5,408	-7,885
삼성테크윈	-110	-7,180	-7,289
KCC	-1,713	-5,415	-7,128
외환은행	-1,900	-3,098	-4,998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206	-6,232	-6,438
디지털컨텐츠	-3,602	-2,343	-5,945
미분류	-939	-1,748	-2,687
STS반도체	-2,713	-435	-3,148
성용광전투자	-892	-1,805	-2,697
JCE	-1,693	-441	-2,134
에스에프에이	-846	-1,228	-2,073
티씨케이	-1,995	-19	-2,013
CJ E&M	-987	-796	-1,782
한국정밀기계	-305	-994	-1,300
성우하이텍	-1,156	-80	-1,236
파트론	-488	-686	-1,174
원익IPS	-764	-214	-97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7	8,100
삼성물산	109	7,732
LG디스플레이	232	6,609
기아차	92	6,213
SK이노베이션	22	3,743
LG이노텍	40	3,282
POSCO	8	3,194
현대차	14	3,08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차바이오텐	78	980
네오위즈게임즈	13	536
서울반도체	20	506
성우하이텍	28	387
메디포스트	2	316
바이넥스	32	295
덕산하이메탈	12	286
잉크테크	9	262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POSCO	8,333	3,528,947
삼성전자	2,023	2,276,174
OCI	5,722	1,507,860
LG전자	12,402	1,010,774
삼성전기	9,231	840,051
하이닉스	26,753	695,572
현대차	3,100	685,195
현대중공업	1,660	509,77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5,163	579,971
서울반도체	5,718	143,234
덕산하이메탈	2,394	55,785
원익IPS	4,160	39,024
차바이오텐	2,988	37,202
안철수연구소	247	30,733
크루셜텍	1,811	29,436
멜파스	1,220	28,053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8,789 증권	-1,188	
전기,전자	2,408 통신업	-1,124	
화학	427 운수장비	-1,115	
한진해운	5,261 현대산업	-1,551	
LG전자	2,995 KT	-934	
STX팬오션	2,135 대우증권	-678	
금호타이어	1,018 삼성전기	-620	
진흥기업	1,000 기아차	-604	
대우조선해양	902 두산인프라코어	-509	
현대상선	764 한일이화	-410	
아시아나항공	594 웅진케미칼	-408	
대한전선	394 기업은행	-386	
STX조선해양	350 SK증권	-31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미분류	873 반도체	-544	
컴퓨터서비스	539 제약	-386	
기계,장비	123 출판,매체복제	-199	
성용광전투자	810 바이넥스	-292	
포스코 ICT	472 STS반도체	-238	
오성엘에스티	106 에코플라스틱	-226	
오성엘에스티	106 에스엠	-211	
시공테크	90 이지바이오	-162	
오픈베이스	76 루멘스	-128	
우주일렉트로	60 멜파스	-119	
3S	54 서울반도체	-106	
아가방컴퍼니	50 SDN	-84	
컴투스	40 파라다이스	-80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20(금)	01/25(수)	01/26(목)	01/27(금)	01/30(월)
외국인	6,109.6	6,109.6	3,261.8	1,415.3	942.4	464.6	456.8	-76.7
기관계	401.7	401.7	-1,300.4	-173.5	-539.9	-173.8	-156.1	-197.7
(투신)	-796.8	-796.8	-1,069.5	-147.5	-461.3	-134.7	-70.7	-200.0
(연기금)	-389.2	-389.2	-430.9	-32.2	-172.9	-129.5	-67.0	-29.3
(은행)	229.8	229.8	3.7	-19.9	23.7	21.1	-30.8	9.6
(보험)	462.2	462.2	-13.6	16.0	-32.7	-23.2	35.1	-9.4
개인	-5,602.4	-5,602.4	-1,897.1	-1,155.2	-396.4	-270.1	-250.7	171.8
기타	-909.0	-909.0	-64.3	-86.6	-6.1	-20.8	-49.9	102.7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01/19(목)	01/20(금)	01/25(수)	01/26(목)	01/27(금)
KOSPI	1,124.47	1,682.77	2,051.00	1,914.97	1,949.89	1,952.23	1,957.18	1,964.83
고객예탁금	9336.3	12072.0	14068.5	18712.5	18808.8	19404.5	19821.6	19572.3
(증감액)	-746.3	-714.3	-228.9	204.0	96.3	595.7	417.1	-249.3
(회전율)	46.9	52.6	51.5	48.8	54.0	44.2	39.4	42.9
실질예탁금 증감	-624.7	-551.4	-655.2	-405.8	-150.9	-147.6	-604.2	-632.9
신용잔고	1502.0	4359.5	5938.3	4550.8	4520.7	4486.1	4404.6	4406.5
미수금	145.1	240.2	192.3	155.0	180.4	176.5	166.7	187.0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1/19(목)	01/20(금)	01/25(수)	01/26(목)	01/27(금)
전체 주식형	102,818	-2,119	-2,119	-106	-274	-213	-1,607	91
(ex. ETF)		-2,774	-2,774	-130	-261	-302	-1,632	-113
국내 주식형	71,574	-1,936	-1,936	-97	-237	-200	-1,604	94
(ex. ETF)		-2,594	-2,594	-121	-224	-289	-1,629	-110
해외 주식형	31,244	-183	-183	-9	-37	-14	-3	-3
(ex. ETF)		-181	-181	-9	-37	-14	-3	-3
주식 혼합형	11,962	-54	-54	-4	-4	-3	-3	-27
채권 혼합형	18,360	8	8	-47	-3	206	6	43
채권형	45,041	-2	-2	-248	101	-318	14	193
MMF	65,233	12,020	12,020	-911	-949	-282	-913	1,55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24(화)	01/25(수)	01/26(목)	01/27(금)	01/30(월)
한 국	305	305	1,623	-	837	414	-	-66
대 만	322	322	665	-	-	-	-	665
인 도	211	211	416	182	234	-	-	-
인도네시아	267	267	-155	12	-34	-32	-18	-83
태국	-32	-32	175	18	5	16	136	-
남아공	-137	-137	-259	1	-44	-141	-75	-
필리핀	113	113	117	128	1	-7	5	-9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0년	01/19(목)	01/20(금)	01/25(수)	01/26(목)	01/27(금)	01/30(월)
회사채 (AA-)	4.27	4.25	4.27	4.29	4.27	4.25	4.23
회사채 (BBB-)	10.26	10.05	10.06	10.07	10.05	10.03	10.01
국고채 (3년)	3.38	3.38	3.40	3.42	3.40	3.38	3.36
국고채 (5년)	4.08	3.51	3.53	3.54	3.53	3.51	3.48
국고채 (10년)	4.52	3.79	3.82	3.82	3.82	3.80	3.77
미 국채 (10년)	3.36	1.98	2.06	1.99	1.93	1.89	-
일 국채 (10년)	1.13	0.97	1.01	1.01	0.99	0.97	-
원/달러	1,134.80	1,137.10	1,134.30	1,125.90	1,122.00	1,123.20	1,127.30
원/엔	1,392.56	1,479.00	1,459.00	1,445.00	1,446.00	1,463.00	1,471.00
엔/달러	81.49	76.91	77.75	77.92	77.59	76.81	76.67
달러/유로	1.33	1.28	1.29	1.30	1.31	1.31	1.31
DDR3 1Gb (1333MHz)	1.09	0.70	0.70	0.70	0.70	0.70	-
NAND Flash 16Gb (MLC)	4.84	2.72	2.72	2.72	2.72	2.72	-
CRB 지수	327.11	311.96	314.69	316.37	317.42	317.57	-
LME 지수	4,164.25	3,639.6	3,663.7	3,689.6	3,776.9	3,756.0	-
BDI	1,773	893	807	784	753	726	-
유가 (WTI, 달러/배럴)	89.84	100.39	98.95	99.13	99.70	99.56	-
금 (달러/온스)	1,405.90	1,654.50	1,664.50	1,700.10	1,726.70	1,732.2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203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월 20일	256.61	257.20	1.19	0.59	1.75	236,313	94,555	11,020
1월 25일	257.14	259.55	1.07	2.41	2.03	269,540	97,946	3,391
1월 26일	257.52	260.00	1.05	2.48	1.94	168,526	98,227	281
1월 27일	258.65	260.20	1.03	1.55	1.70	208,941	99,903	1,676
1월 30일	255.21	257.25	0.97	2.04	1.44	251,960	100,547	644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월 20일	3,778	230	-4,412	-1,985	-2,143	-207	-100	66
1월 25일	-537	1,723	-1,772	112	-1,729	-669	640	-88
1월 26일	1,703	-1,468	-212	-324	-358	-165	667	-16
1월 27일	-1,033	192	650	112	-48	128	388	58
1월 30일	203	442	0	406	-608	-81	328	-36
누적포지션	6,075	4,828	-9,705	-5,586	-3,803	-1,117	898	-115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월 20일	590	1,686	1,097	543	1,105	562	47	581	534	6,980	7,810
1월 25일	851	1,526	674	825	888	63	26	637	611	6,780	8,120
1월 26일	656	1,055	399	643	787	144	13	268	255	6,731	8,306
1월 27일	567	899	333	512	728	216	54	171	117	6,734	8,426
1월 30일	966	1,010	45	878	801	-76	88	209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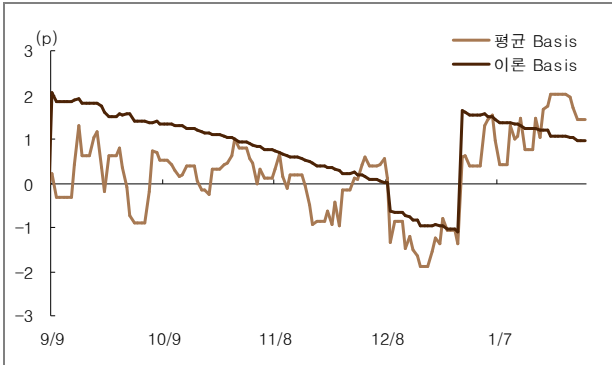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21.68	3,315	643,815	0.25	270.00	14.30	463	150	5.00
21.80	30,397	1,089,057	0.45	267.50	11.90	4,992	183	5.00
22.03	20,420	938,717	0.78	265.00	9.80	4,171	-398	16.03
22.60	11,044	856,540	1.32	262.50	7.80	21,763	1,317	18.04
23.19	-9,855	749,159	2.08	260.00	6.00	56,571	-316	19.02
23.28	-1,161	117,297	3.00	257.50	4.35	74,965	-599	19.06
23.87	240	62,981	4.25	255.00	3.40	235,752	-1,631	21.51
24.83	119	29,522	5.80	252.50	2.39	896,035	962	21.96
28.07	220	11,979	7.90	250.00	1.73	883,924	5,838	23.14
29.81	-377	3,403	9.90	247.50	1.27	625,301	5,516	24.51
30.18	-50	1,688	11.85	245.00	0.85	558,595	4,688	2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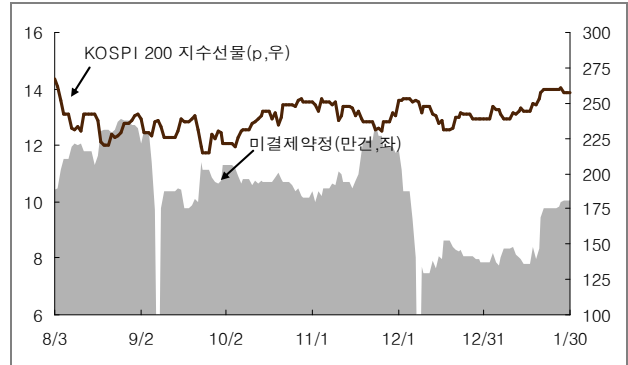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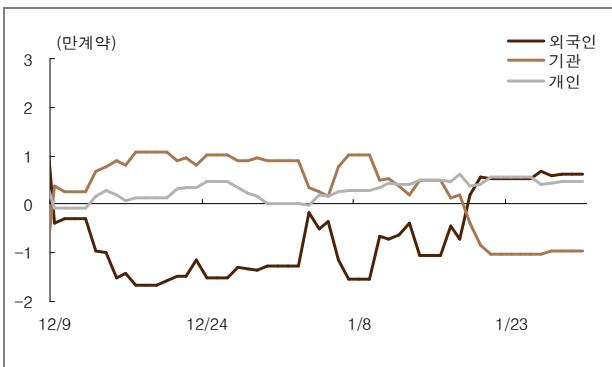
- 평균 Basis: 1.44 (전 거래일 대비 0.26 하락)
- 이론 Basis: 0.97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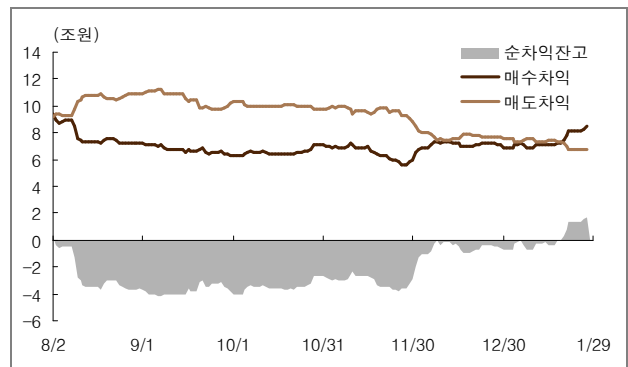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644 계약 증가한 100,547 계약
- 선물가격(257.25): 전 거래일 대비 2.9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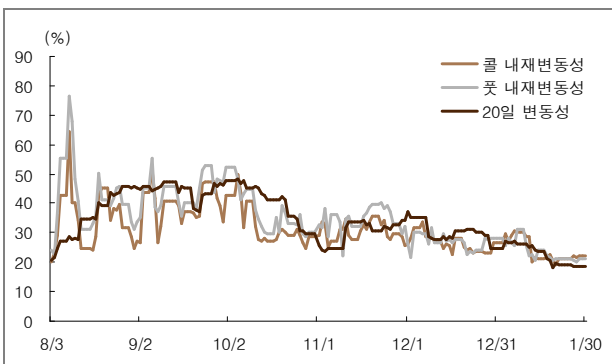
- 외국인: 203 계약 순매수
- 기관: 0 계약 순매수 / 개인: 442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1,207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760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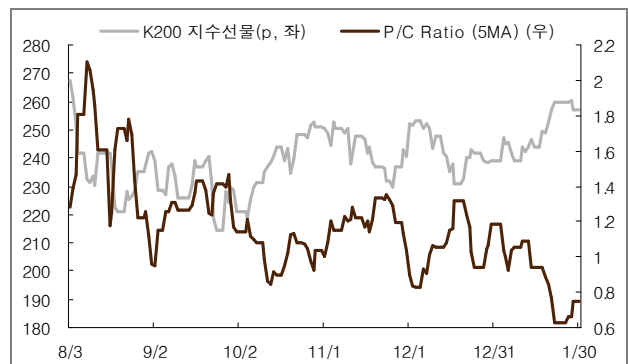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21.9% / 풋 21.2%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8.68%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3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756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3	24	25	26	27
	유럽> 1월 PMI-제조업 (48.7, 47.0, 46.9) 1월 PMI-서비스 (50.5, 48.7, 48.8) EU 재무장관 회의 스페인 국제입찰 실적발표> 美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맥도날드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5.0%, n/a, 23.1%) 12월 미결제잔액 MoM (-3.5%, -1.0%, 7.3%) FOMC 금리결정 (0.25%, 0.25%, 0.25%) 日> 12월 무역-수출 YoY (-7.4%, -8.0%, -4.5%) 12월 무역-수입 YoY (8.1%, 8.0%, 11.4%)	韓> 4Q GDP YoY (3.4%, 3.5%, 3.5%)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7.7만, 37.0만, 35.2만) 12월 경기선행지수 MoM (0.4%, 0.7%, 0.5%) 美> 12월 신규주택매매 MoM (-2.2%, 1.9%, 1.6%) 12월> 이탈리아 국제입찰	韓> 1월 소비자대지수 (98, n/a, 99) 2월 BSI-제조업 (81, n/a, 79) 2월 BSI-비제조업 (79, n/a, 79) 美> 4Q GDP QoQ (연간화) (2.8%, 3.0%, 1.8%) 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75.0, 74.0, 74.0) 유럽> 이탈리아 국제입찰 日> 12월 CPI YoY (-0.2%, -0.2%, -0.5%)
30	31	1	2	3
유럽> 1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n/a, -20.6, -20.6) EU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제 입찰 실적발표> 韓 LG이노텍, 현대건설, 한진해운 LGU플러스, 삼성엔지니어링	韓> 12월 산업생산 YoY (n/a, 4.1%, 5.6%) 12월 경기선행지수 YoY (n/a, n/a, 1.1%) 美> 11월 S&P/CS 20개 도시 MoM SA (n/a, -0.50%, -0.62%) 日> 12월 자동차 생산 YoY (n/a, n/a, 4.5%) 실적발표> 韓 LG화학, 삼성SDI, 대한항공, , LG디스플레이, 제일기획 美 엑손모빌, 하이자, US스틸	韓> 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3.6%, 4.2%) 1월 무역-수출 YoY (n/a, 1.1%, 12.5%) 1월 무역-수입 YoY (n/a, 5.1%, 14.0%)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5.0%) 1월 ISM 제조업지수 (n/a, 54.5, 53.9) 1월 ADP 취업자 변동 (n/a, 18.3만, 32.5만) 유럽> 1월 PMI 제조업 (n/a, 48.7, 48.7) 독일 국제 입찰 中> 1월 PMI 제조업 (n/a, 49.6, 50.3) 1월 HSBC 제조업 PMI (n/a, n/a, 48.7) 실적발표> 韓 LG전자, 제일모직, 대림산업 美 아마존*, 월플, AOL	韓> 1월 외환보유액 (미확정) (n/a, n/a, \$306.4B)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7.0만, 37.7만) 유럽> 프랑스 국제 입찰 日> 1월 통화공급-본원통화 YoY (n/a, n/a, 13.5%) 실적발표> 韓 SK텔레콤, GS건설, S-Oil, 하이닉스, 녹십자, 삼성물산, 삼성물산 美 퀄컴*, 다우케미컬, 블랙스톤,	美> 1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n/a, 15.0만, 20.0만) 1월 실업률 (n/a, 8.5%, 8.5%) 1월 ISM 비제조업지수 (n/a, 53.2, 52.6) 12월 제조업 수주 MoM (n/a, 1.5%, 1.8%) 유럽> 1월 PMI 서비스 (n/a, 50.5, 50.5) 中> 1월 중국 비제조업 PMI (n/a, n/a, 56.0) 12월 선행지수 (n/a, n/a, 100.18) (1/5) HSBC 서비스 PMI (n/a, n/a, 52.5) 실적발표> 韓 호남석유, SK이노베이션, KT, POSCO 美 이메이션
6	7	8	9	10
유럽> 2월 섀넥스 투자자대지수 프랑스 국제 입찰 日> 1월 공업기계 수주 YoY (미확정)	美> 2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12월 소비자신용지수 실적발표> 美 코카콜라	韓> 1월 은행가계대출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유럽> 독일 국제 입찰 실적발표> 美 월트디즈니*, 타임워너, 무디스 랍프로렌, 그루폰	韓> 금통위 금리결정 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오바마-몬티 정상회담 유럽> ECB 금리 공시 BOE 금리 공시 中> 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日> 12월 기계수주 YoY 1월 소비자대지수 실적발표> 韓 NHN, 현대하이스코 美 비자*, 시스코*, 펍시코, 필립모리스, 링크드인	美> 12월 무역수지 2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中> 1월 무역수지 1월 무역-수출 YoY 1월 무역-수입 YoY 실적발표> 韓 삼성생명, 현대제철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